

성화 4

(둘째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며 목표)

지난 주에는 예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부활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새사람으로 사는 삶, 하루하루를 새로운 자아로서 살아 가는 것, 하루 하루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완전 성화를 우리 안에서 죄가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 죄가 완전히 제거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으로 싸우고 있지만, 무엇이 완전 성화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성령안에서 새사람으로 가장 잘 살면 그것이 완전 성화입니다.

새사람으로 가장 잘 사는 삶이 성화의 삶이고, 새사람으로 가장 잘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완전 성화의 삶은 부활의 삶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부터 이해하기 위해서 중생과 성화의 관계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1 중생과 성화의 관계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당신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 죄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영생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3 :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매일 매일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성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같이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화는 중생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중생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화부터 하겠다고 날뛰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또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 중생
 안했거들랑요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생이 있으면 성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두가지의 양태--- 실존(existence)과 본질(Nature)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이 있다고 하십시오. 돌이 존재하기 위해선 실제로 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실존). 또 이 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실존하는데 본질이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본질은 있는데 존재가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중생도 반드시 실존을 대표하는 생명(=영생, eternal life)과 생명의 본질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육적 탄생과 비교하여 도표로 그리면

	육적 탄생(Natural Birth)	중생(Born Again)
생명의 동일성(Life)	육적 생명(Finite Life)	영적 생명(Eternal Life)
품성의 동일성(Quality)	아버지의 품성 Nature Of His Father =Sinful Nature, Flesh(육)	하나님의 품성 Divine Nature

누가 어떤 사람의 자녀라고 할 때, 그는 반드시 그 부모의 생명을 받아야 하고, 또 반드시 그에게 생명을 준
 자의 품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성령)을 가져야 하고, 영생이 있다고 할 때 반드시 생명의 품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생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 조금도 변화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자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100% 성화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생없는 성화가 있을 수 없고, 성화없는
 중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한 후 성령 충만으로 인해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화를 그만큼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성화가 그것을 백업해주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성령님은 죄와는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과 부활의 확신, 성화의 완성을 SAME EVENT BUT DIFFERENT ASPECTS 로 보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영생의 확신이 충만하고, 영생의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활의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아울러 성화도 더욱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부활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부활한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 기쁨과 평안은 이 성화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성화해야 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성화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대신 축복을 받아라, 잘된다, 하는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에 바탕을 두지 않은 축복과 위로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성화를 자기의 신앙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성도는 복있는 사람입니다.

2. 다음에 성화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늘의 것으로 덧 입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으니라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 :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성화를 지시하는 말을 찾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 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였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변화해갑니다.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가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흠에 속한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고자 하늘로 부터 오신 분은 둘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둘째 사람이다 한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성화와 관련지어서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성화의 삶을 살으신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화의 질적 성질, 성화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지시해 줍니다.

2.1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살으셨다는 것에 대해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완전 성화의 삶을 사신 것은 천사로 오셔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완전 성화의 삶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화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화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포기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화의 목표라고 하면 지레 질겁을 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원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는 시험도 없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르다, 우리는 타락한 자손의 후예다, 원죄, 자범죄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원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먼저 예수님도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 당신의 고백부터 들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 :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은 평생 시험 중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등등에서 모두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시험 중에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길,

히브리서 4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평생 마귀에게, 적들에게 시험을 다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죄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있어서 어떤 benefit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죄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거룩을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 :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잠언에 술객이 독사에게 물렸으면 그 방술은 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가르침을 위해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독사에게 물렸으면 그의 가르침은 무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지속적으로 흠없이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 : 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수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자신을 거룩케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셨습니다. 완전 성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2.2 다음에 둘째 사람은 성화의 본질을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다른 곳에서 말했으므로, 둘째 사람의 IDENTIFICATION에 대해서만 공부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변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 땅에서 하늘의 소산을 거둘 수 없고, 땅의 열매로 하늘의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 땅에 것은 모두 육이기 때문에 영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은 하늘로 부터 영의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태까지의 가르침은 성화의 목표에 대하여, 타락하기 전의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 : 29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 :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 하셨다는 말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어 둘째 사람으로 하늘로 부터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변해가야 할 인격의 본질을,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3.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둘째 사람의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부활과 연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첫째는 생명의 연합이고 둘째는 윤리적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나타내는 말은,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에 윤리적 연합을 나타내는 말은

고린도전서 6 :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 4 :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 4 :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전 4 :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데살로니가전 4 :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 4 :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 4 :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

